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Steven Martinolich	11:15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Praise & Worship	Praise Team	
Call to Worship Psalm 47:2,8	Presider	
Prayer	Elder Kap Jin Lee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38.....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Mark 10:32-52	Presider	
Anthem The peace of God	Jerusalem Choir	
Sermon How Are You Saying Yes to Jesus	Presid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Song 634(70)	Together	
* Offering Prayer	Presider	
Welcome Newcomers	Congregation	
Member's Blessing	Congregation	
* Hymn 540(2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How Are You Saying Yes to Jesus

Mark 10:32-52

Summary of the sermon

How long have you been following Jesus and have you figured out why you are not following Him as you know you should? This passage makes us stop and examine the motives in our heart as to why we are following Jesus. If we stay ignorant to the motives of our heart that are not of His Kingdom, we will never grow and transform and be who and what we ought to be for God and His plan.

The text reveals how we can have motives of the flesh wrapped tightly in selfish desires. If these are not met and repented for, we could stay baby Christians throughout our entire life, and never become who God desires us to be.

To live following Jesus is to be completely selfless. If there is any desire for yourself, then you have failed to understand the entire birth, life, and death of Jesus Christ. In Christ, you exist for the sole purpose of others, and the moment or area in your life where you only think of yourself, are the moments and areas that you step outside the body of Christ, and your identity as one who has received the faith. This will prevent growth, transformation and again never becoming who God desires you to be.

The blind man reveals what we must do in this dilemma of trying to rid the desires of the flesh that will keep coming up in our Christian walk preventing us from growing and transforming. It is to cry out to Jesus, to not stop until you have reached Him, and plead for mercy. Crying out means you know only He can save you, not stopping until you reached Him, means you know the urgency for His help. And pleading for mercy means you know you have to bow down to Him and ask in pure faith, hope, and love that He will do it.

Maybe you have said yes to Jesus a long time ago, but many things are still the same and your growth has come to a halt. The question to ask is, how are saying yes to Jesus every day, and if you are not on your knees begging for mercy for change, for growth, for transformation, and instead full of selfish desires, you are falling short.

Announcement

-Welcome!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Our Discipleship I & II continues. Discipleship I- 12:50-1:30 Discipleship II- 1:50-2:30

-Please welcome back director Lheem, Binayak, Pratibha, ShinHae, Silvia, and Hyejin from serving in Cambodia, and continue to pray for the team now in Indonesia.

-Please continue to be faithful in our 'Read the Bible in One Year Program' and daily check out our website to read the Daily Bread. www.seoulem.org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본 당 Ⅱ, Ⅲ, Ⅳ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Ⅱ 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 Ⅲ, 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에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602 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집회		오전 9시	601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회		오전 10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노경호 **교육전도사** 이신우 박다형 최인애 허승일


협동 목사 김영한 김철홍


선 교 사 강아름 주하나, 이시라, 권요셉-조에스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윤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김낙영 -오정녀(케냐) 김태식, 윤영모, 추수호,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티카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Ngiang Hi-Samuel Kei Sum(미얀마)

제22권 제 32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2년 8월 5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진정한 믿음의 열매” (Fruits of the Faith)

■ 사무엘상 2:1-11

오늘 본문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닌나의 공격을 계속 받아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격분되어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무엘이라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이후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더 낳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의 기도와 헌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고가는 세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성리의 여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나처럼 성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한나의 믿음은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기도와 쌍벽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삼상2:2절). 한나는 기도의 서두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주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는 아주 절묘한 대창법을 사용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삼상2:4절).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분의 절대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며 그분의 뜻은 분명히 이뤄진다는 놀라운 고백이 한나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기뻐하고, 그 지식이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되며, 그 지식으로 인한 믿음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한나의 믿음은 삶의 태도와 몸의 상태를 변화시켰던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믿음은 신화적인 지식과 추상적인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그의 삶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나요? “이르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삼상1:18절) 한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만에 싸여 자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닌나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격분함이 떠나지 않았습다. 한나는 눈물로 나날을 보냈고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한 후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굳게 한 후에 그의 근심과 걱정,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는 순종으로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자, 그를 젖떼기까지 키우다가 그를 정말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 머물게 합니다(삼상1:27-28).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서원을 지켰습니다. 왜냐면 한나는 자신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삼상2:21절). 한 아들을 드렸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아들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가는 모든 세대에 믿음의 불을 밝히는 귀한 종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의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을 주님께 구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중에서)

